

수신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귀하

제목 : 버스중앙차선 정류소(장) 불편사항 및 개선요청

2022.9.18

안녕하세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직업특성상 버스정류소(장)와 관계가 많은 직업인데 평소 느낀 불편한점/개선
필요점 (**버스중앙차선 정류장관련**)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서울 전역이 해당되나 송파대로,천호대로 및 시내쪽 현장기준작성)

- 천호대로의 버스중앙차선 정류장은 보통2개와

송파대로와 동묘~ 종로구간기준은 보통 3개의 승차대가 각 정류소에 있습니
다 (**사진 #1,#2,#3**)

- 승차대의 배치는 정류장 기준 적정 간격으로 배치되어있음(2~3개)

■ 첫 번째 제안

승차대의 위치기준 활용도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활용도가 없는 자원(승차
대)의 다른부분 활용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진#4,#5**)

- **첫 번째가 100이면 두 번째는 30이하이며 세 번째는 거의 zero입니다**

■ 두 번째 제안

승차대의 위치가 건널목 바로 최대한 앞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동대문역/군자역정류소 예로 (**사진#6,#7**)는 정류소 길이가 짧으나 노선
차량이 많은 경우 차 한 대라도 더 정류소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한 대분
정도의 정류소가 승차대의 위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승차대위치가 건널목 앞부분까지 설치가 되었다면 차량한대 정도가 더
들어 올 수 있음 버스가 앞으로 갈 수 있으나 보통 승객들이 승차대에 있기에
승차대 대기중 승객앞에 정차하게됨

■ 세 번째 제안

정류장의 의자가 적어 보입니다 (2개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진#8**)

- 어르신등 교통약자가 잠시 버스를 기다리며 편히 앉아 기다릴 수 있는
의자를 더 배치하면 좋을 듯합니다(**사진#9**)

(우천시의 정류소 역할에대해서는 쉼터(천호역,송파구청)관련 별도 제안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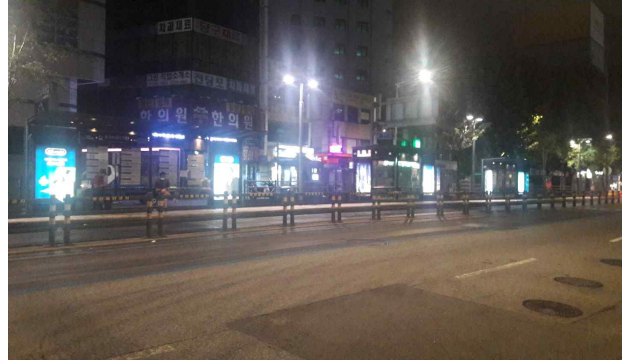
이상

사진#1 버스중앙선 정류장 모습 (승차대2개,3개)

승차대2개 - 천호대로 (천호역->동대문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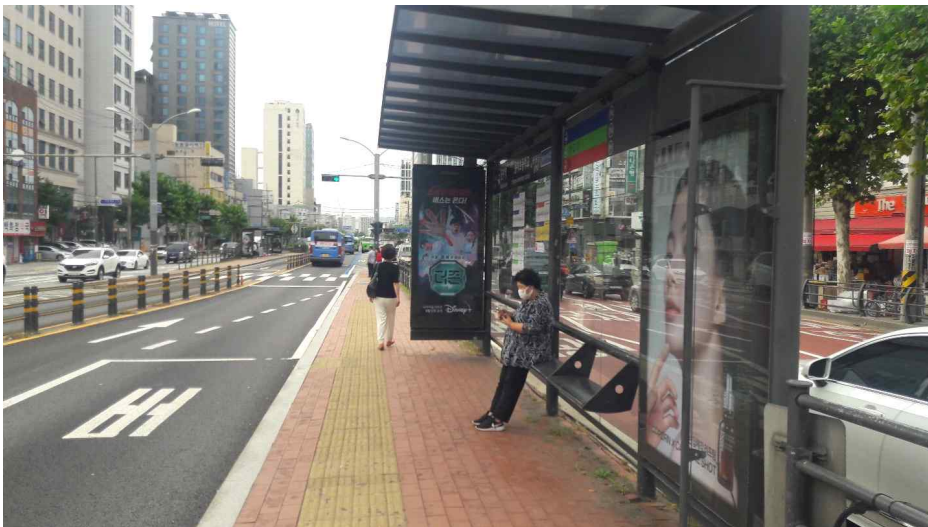
승차대3개,- 동묘부터 종로등 시내 및 송파대로



승차대 2개 정류소 특징
 승차대#1에 의자두개 #2에 의자없음
 유리블로이 #1에 4/ #2에 5
 승차대 3개 정류소 특징
 승차대#1,2에 의자두개,#3에 의자없고
 유리블록이 4/4,4/5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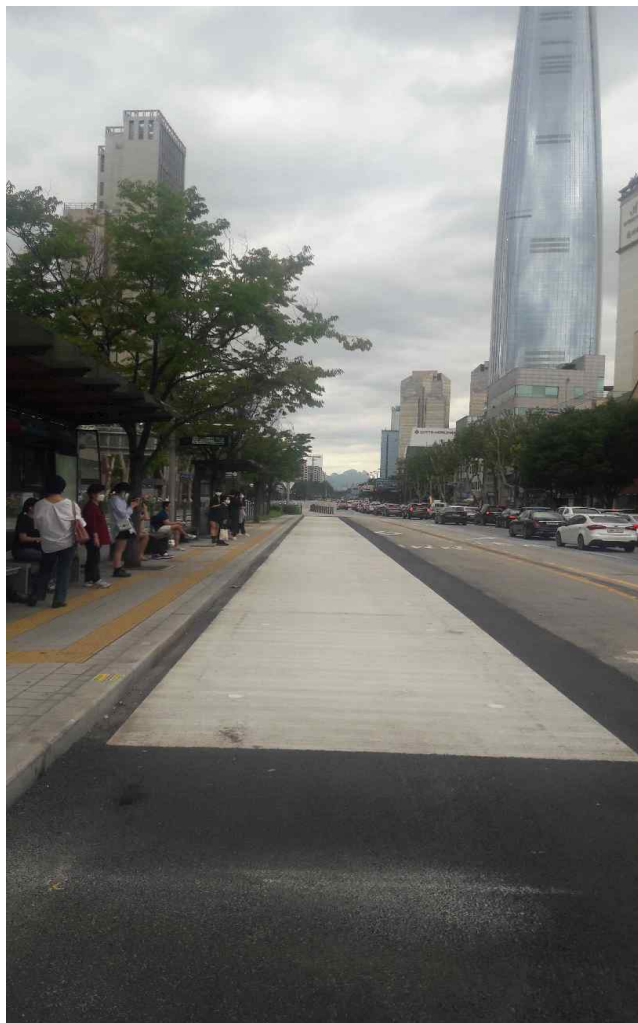
사진#2 버스중앙선 정류장 모습 (승차대2대) 군자역



천호대로(길동사거리~동대문구청까지) 중
양차선은 거의 승차대가 2개인데 그중 두
번재는 의자가 아예 없음



사진#3 버스중앙선 정류장 모습 (승차대3개) 송파대로(석촌역)/길음/성신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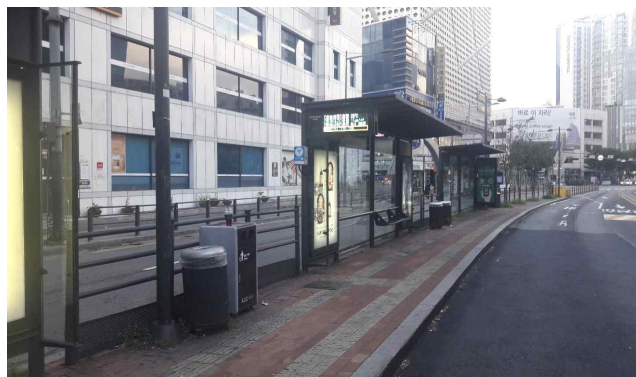
버스중앙선 정류장의 승차대가 3개 있는 곳

송파대로 (석촌호수, 석촌역, 송파역, 가락역등)

길동사거리~천호역

시내길 (동묘~종로길)

성북구 (성신여대, 길음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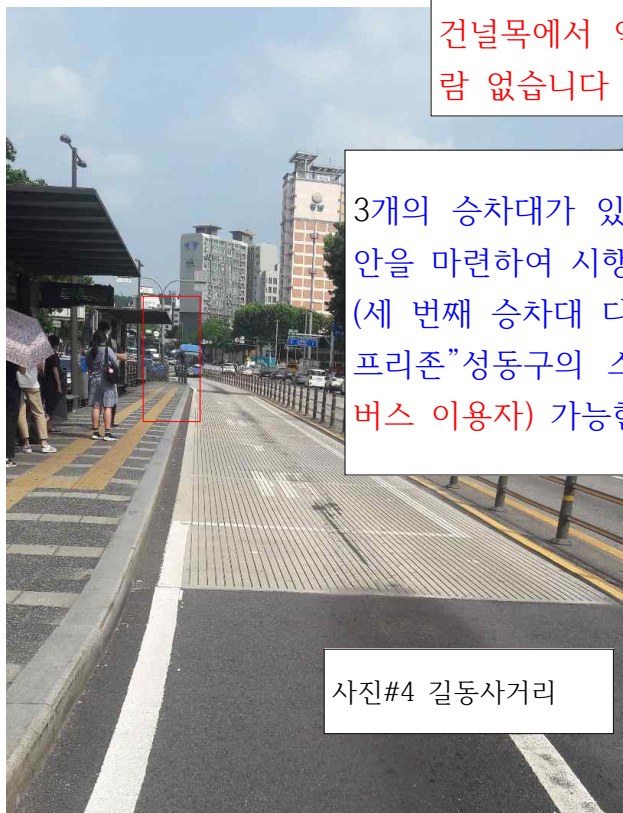


사진#4 승차대3개가 있는 곳의 3번째는 활용도 거의 Zero

건널목이 정류장 앞,뒤에 있으면 활용도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활용도가 거의 없음

길동사거리 강동세무서/동묘역/성신여대/미아리고개의 3번째 승차대 활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널목에서 약30M나되어 그쪽까지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3개의 승차대가 있는 정류소를 파악하여 가용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 예산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승차대 다른곳으로 이동시 그 위치에 강남구의 “미세먼지 프리존”성동구의 스마트쉼트처럼 동절기 바람막이 역할(특히 심야 버스 이용자) 가능한 부스 설치가능 할 것입니다)

사진#4 길동사거리



사진#4 동묘역

사진#5 승차대3개가 있는 곳의 3번째는 활용도 거의 Zero

건널목이 정류장 앞,뒤에 있으면 활용도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활용도가 거의 없음

길동사거리 강동세무서/동묘역/성신여대/미아리고개의 3번째 승차대 활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널목에서 약30M나되어 그쪽까지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사진#5 미아리고개



사진#5 성신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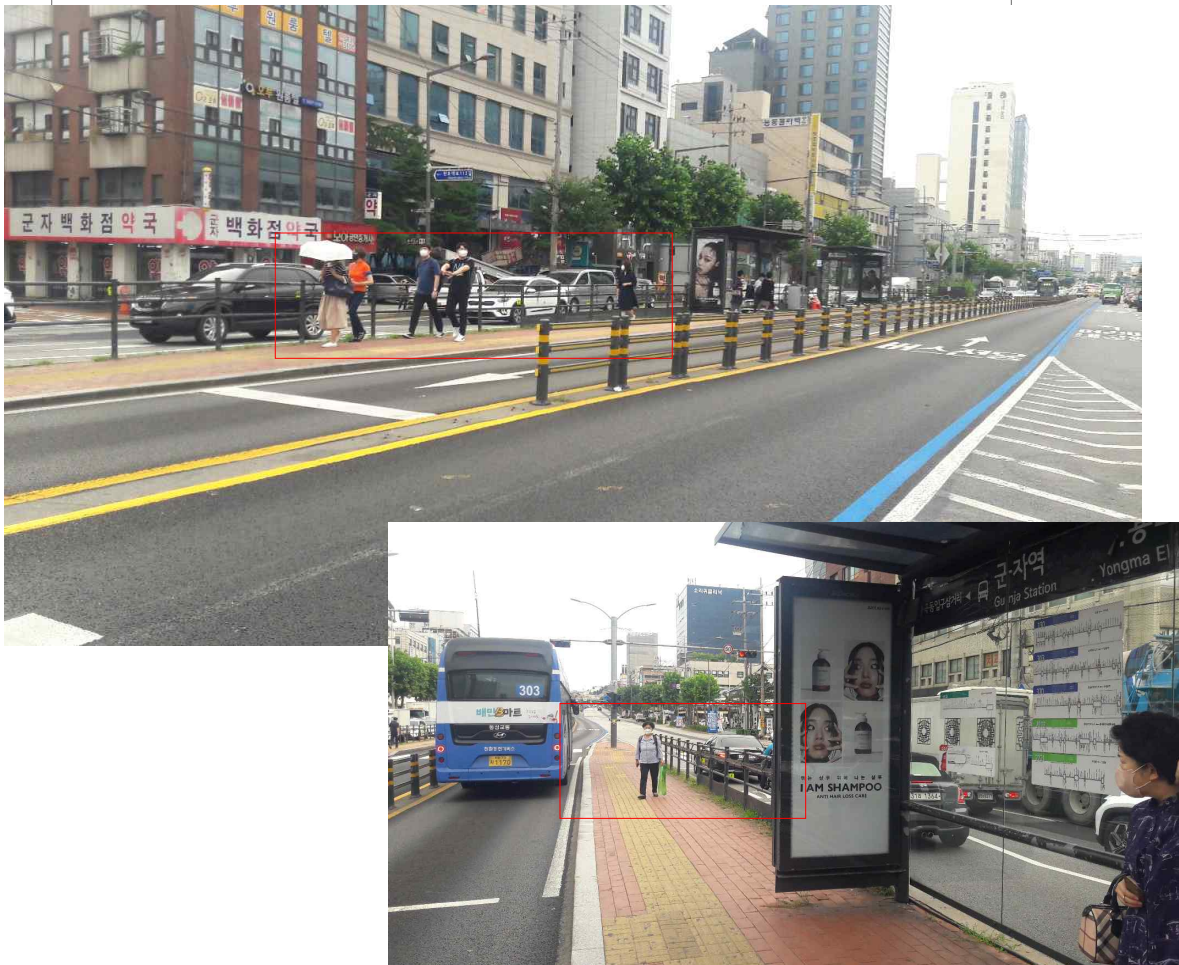
아예 광도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사진#6 동대문역 정류장 (승차대위치)



사진#6 군자역 정류장 (승차대위치)



아래 강동역과(사진#7) 같이 건널목앞에 바로 승차대가 설치되면 정류소에 진입
하지 못해 대기하는 버스를 한 대 줄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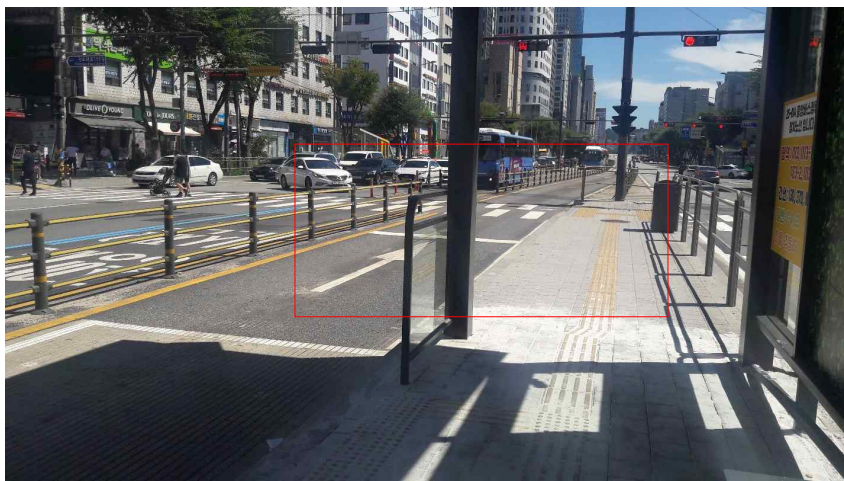
==> 버스 추월선이 있는 정류장은 승차대가 현재처럼 뒤쪽에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정류장은 승차대위치를 정류로 기준 2~3개 승차대를 보기좋게 설
치하는 것 보다 승객 및 기사에게 더 편하고 실용적인 배치가 아쉽다고 여겨집니
다

==> 첫 번째 승차대를 건널목기준 앞쪽으로 하는것뿐아니라 두 번째도 간격
를 두고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붙여서 배치하면 우천시 우산을 들고
버스 승차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므로 차후 신규 정류장 개설시 감안해주
시기 바랍니다 (업체 설계부서)

==> 혹시 첫 번째 제안의 3번째 승차대의 기타 부분에 활용방안이 결정되
면 추가로 이동설치하면 설치비만 소요되니 좋을 수 있습니다

사진#6 천호역 정류장 (승차대위치) 쉼터(신규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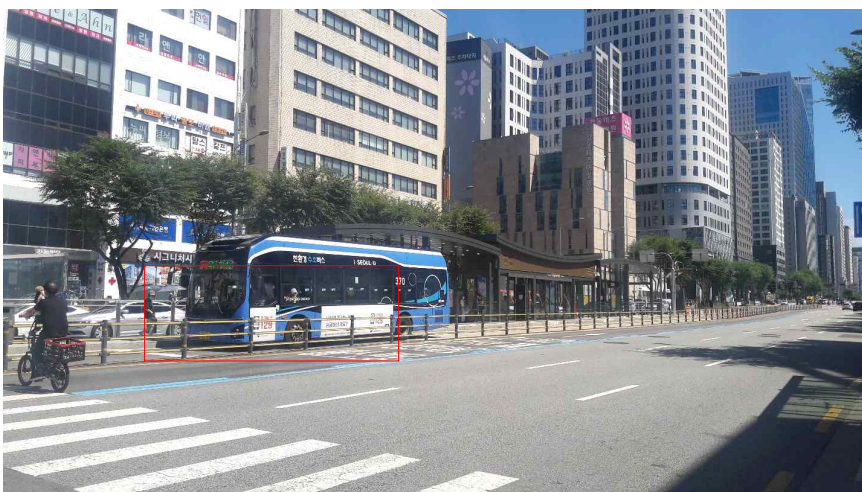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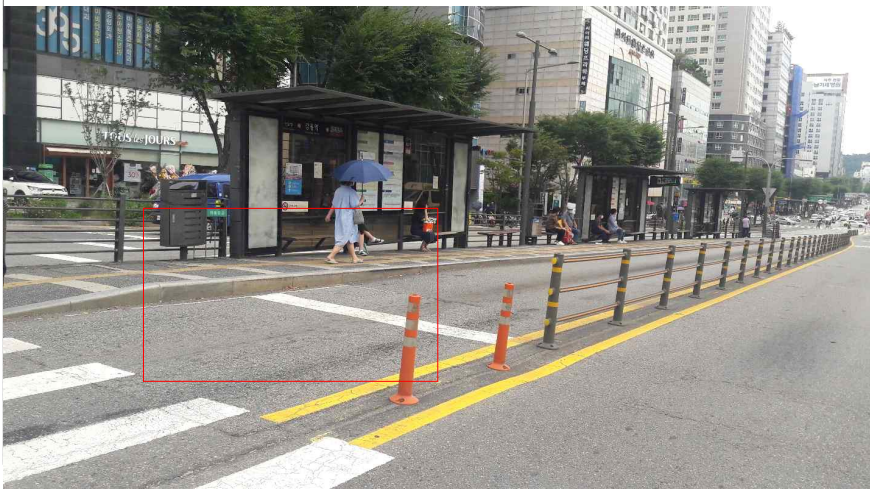


승차대위치에 대해 아쉬움은 있었지만 기존 설치된 것 손대기가 힘든 상황이라 지나쳤는데 이번에 천호역에 쉼터로 신규설치되는 상황에 역시나 앞부분의 공간 여유로 출,퇴근 버스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정류장에 진입 못하고 대기했다 진입하는 상황이며 또한 쉼터의 운영방식에 더 시간이 지연됩니다

쉼터의 운영상 문제점은 별도 제기합니다

(제가 운행하는 잠실,천호역중심에서 송구청 방이맛골에 처음 설치 후 두 번째 설치되는 상황에 이후 추가로 진행될 것 같아 현재의 아쉬운점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승차대위치 건을 제안으로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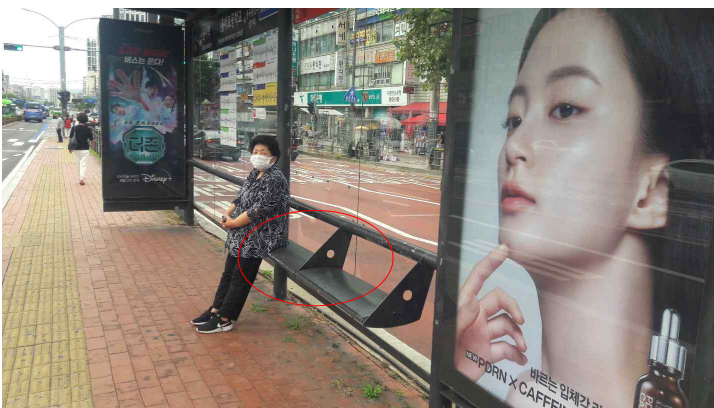
사진#7 강동역 정류장(승차대위치)



사진#8 승차대에 의자가 부족해 보입니다(천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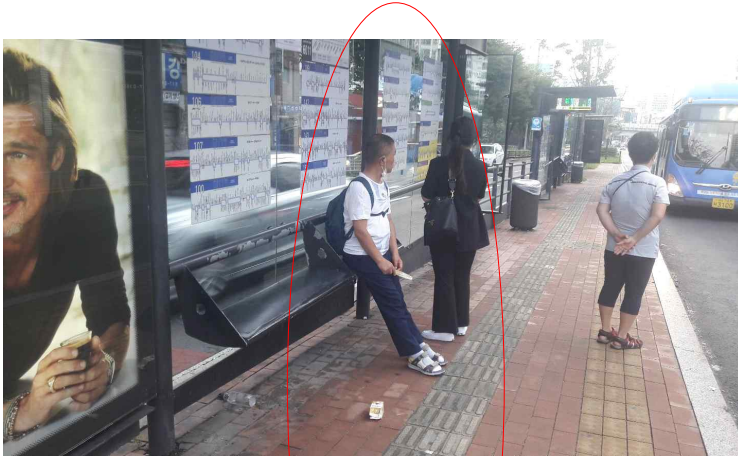


천호대로(길동사거리~동대문구청까지) 중앙차선은 거의 승차대가 2개인데 그중 두 번째는 의자가 아예 없음



의자가 높아 앉기 힘들다고 하시네요

사진#8 승차대에 의자가 부족해 보입니다(미아리고개)



의자가 높아 앉기 힘들다고 하시네요



사진#9 벤치식 의자가 좋을 듯합니다 (동대문역/북정역환승장)



강동구에서 기증한 의자입니다

각 구청에서 버스중안차선에 추가로 의자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표준화가 필요하겠지요)



정류장 의자를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고 길게 된 벤치식이면 많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별도제작품이면 가격도 높아집니다

